

록밴드 '이글스' 이정록 사진 작품에 반했다

해외 명사들, 광주 작가 작품 컬렉션 활발

조 월시, 옥션서 이정록 작품 구입 아내에 선물

이이남 '신-목죽도'는 다음 달 UN본부에 설치

광주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명 옥션에서 작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장소에 작품이 걸리고, 명사들도 작품 컬렉션에 나서고 있다.

작전작가 이정록(43)씨의 작품은 최근 팝의 명곡 '호텔 칼리포니아'로 유명한 미국 록 밴드 '이글스'의 보컬 조 월시(Joe Walsh)가 구입했다. 조 월시는 미국 아트넷 옥션(www.artnet.com/auctions)을 통해 이씨의 'Tree of Life' 2~6'(90 x 120cm)을 4000달러(한화 약 450만 원)에 구입, 생일을 맞은 아내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작품은 이달에만 모두 4점이 뉴욕 월가 금융인들에게 판매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관훈갤러리를 통해

어 아티스트 이이남(45)씨의 '신북 죽도'는 미국 뉴욕 UN본부 건물에 설치된다. UN본부 건물은 200여 개국 대표들이 외교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어서, 작품을 놓게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북죽도는 먹의 농담으로 대나무의 절개를 표현한 김홍도의 북죽도를 디자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바탕의 흐름과 설경을 표현,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 특징이다.

이씨는 다음달 3일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직접 작품을 설치, 기증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씨의 신북죽도를 보고 "한국적이어서 마음에 와 닿는 작품이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반 총장에게 작품 설명하던 중 작품 기증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미술관 코코 코트야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장에서 신북죽도 등 작품 4점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담양 출신 미디



이정록 작 'Tree of Life'



이이남 작 '신-목죽도'

檢, 노태우 추징금 200억 환수 추진

노태우 동생 비자금 지키려 3자명의 주식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 '꼼수'

국가가 노태우(81)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에게서 추징금을 대신 환수하기 위해 29일 수원지법에 거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78)씨가 제3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동생 재우씨는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조성한 비자금이 유입돼 만들어진 회사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동생에게 비자금 120억원을 전달했고, 재우 씨는

이 돈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이 내지 않는 추징금의 일부를 동생 측에서 환수하기 위해 회사 주식 매각을 통한 추징금 환수를 추진해왔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동생 측이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천원)를 매각하고 명령했다. 장외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추징금 총액은 2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생 측은 추징에 맞서 회사 정관을 바꾸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회사의 주식 수를 기준 100만주에서 200만주로 늘리고 이사 수를 기준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식 수를 늘려 가격을 낮추고 주요 주주

의 경영권 행사를 어렵게 해 주식 매각에 따른 추징을 회피하거나 추징액을 낮추려는 시도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임시주총 결의금지 거래분 신청을 냈으며, 설령 향후 주총 결의가 있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 등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판례에 따르면 거래분에 반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추징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중 약 2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자파 피해 줄이고 싶나요?

"가전제품 30cm 떨어져 사용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서진)은 '일상 생활에서 전자파를 줄이는 가전제품 사용 가이드라인'을 3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활가전제품은 30cm 떨어져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밀착해서 사용할 때에 비해 전자파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몸을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장판의 경우 담요를 깔고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온도 조절기는 멀리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이 전자파의 영향을 줄이는 길이다. 전기장판의 자기장은 3~5 cm 두께의 담요나 이불을 깔고 사용하면 밀착시에 비해 50% 정도 줄어든다. /연합뉴스

전자파인지(마이크로웨이브 오븐)가 동작하고 있을 때는 가까운 거리에서 들여다보시는 안 된다. 헤어드라이어로 머리카락을 말릴 때는 커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커버가 없다면 머리 부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약 2배로 늘어난다.

가전제품은 필요한 시간만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항상 전원을 뽑아서 불필요한 전자파 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속설과 달리 속·선인장·동전이나 전원 콘센트(아웃렛)에 부착해 사용하는 전자파 차단 필터 등은 인체의 전자파 노출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전혀 없다.

'만학도' 권노갑

83세에 한국외대에서 영문학 석사학위...8월 석사모



권 고문은 '평소 케네디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사상에 많은 관심이 있어 정치활동 중에도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정치 입문 전 목포여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한 바 있는 권 고문은 고령임에도 대학원에서 높은 학위로 장학금까지 받아 어려운 학생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용현 광주고법원장 내정

6월 10일자로 임명



장재직 시에는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제도와 양육비 산정기준 표를 마련하는 등 재판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대법원장의 영어통역을 전달할 정도로 영어실력이 뛰어나며, 취미로 즐기는 테니스도 수준급이다. 부인과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김택수 현 사무처장은 박한철 소장 취임 후 헌법재판소 행정에 새로운 협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동구 '구도심 공·폐가 활용 방안' 大賞

광주시 정책아이디어 컨퍼런스

광주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산하 공직자 정책아이디어 컨퍼런스'를 열어 대상에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구도심 공·폐가 창조문화 공간 조성사업'을 선정했다.

동구청 김혜진·이근희·이유정·신희진씨 등 4명이 제안한 이 사업은 동구에 방치된 공가와 폐가를 활용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게스트 하우스 ▲예술인들의 커뮤니티가 될 예술인 창작촌 ▲도시농업을 통해 생태문화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마을텃밭 등을 만드는 창조적인 문화 공간 조성사업이다.

금상에는 시청 회계과 홍복기·최원식씨가 공동 제안한 '시 청사 민원

실 전면 실내계단 철거로 효율적인 공간 마련'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양철완씨가 제안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일대보증금 지원' 등 2건이 선정됐다. 이밖에 은상 3건, 동상 4건 등 총 10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으며 대상 300만원, 금상 200만원 등 총 상금 1200만원이 지급됐다.

광주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구 공무원과 시 산하 기관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접수된 501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최종 20건의 아이디어를 결선에 올렸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선도 할 전국지사 / 대리점 및 딜러 모집

- 모든 기술 제반 본사 지원!
- 영업/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수익보장!
-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더 가온의 서비스란?

▶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명함

▶ 오프라인의 출입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출입카드

▶ 강력한 스마트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주식회사 더 가온

02)6925-2558 / 010-8794-7609

www.thegaon.co.kr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제3분야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호

눈이 피로하면 온 몸이 피로하다!

눈은 강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뜯어내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회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뻗쳐 눈이 침침하고 이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피티솔 맞은편
www.indara.co.kr 광주은행 6층 신세계백화점사거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증-9819호 [광고]

광주점 062-368-5075



인다라한의원 광주점
원장 김동진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의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잡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깔깔하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알이 뿐에 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미음이 쉽고 쉽게 흘러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얼굴에 결리거나 아파다